

# 한철 살면서 조건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다. 근데 그 많은 씨가 든 석류를 그냥 석류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석류라고 하죠, 우리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자생 중생 개개의 모습과 의식 또는 생명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는 일이 없죠. 빗방울이 다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통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 의식이 마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를 먹어도, 하다못해 사과를 하나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없습니다. 수십억의 생명들이 먹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면 사대가 흩어져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씨를 많이 해 놓고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없고 생산할 수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생명들을, 모습들을 이렇게 형성시켜 놓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의 섭류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우리가 점점 점점 불어나 가게끔 한 자체가 바로 마음의 씨입니다. 씨 하나에 의해 석류가 열리면 그 석류 하나 안에 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듯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질래야 질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씨 하나가 그렇게 많은 약업 선업의 씨를 내 몸통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먹은 게 어딴 겁니까?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그냥 하나가 들어가면 서로 먹고 사는데 아니, 여러분은 입을 발리고 손을 발리고 눈을 발리고 귀를 발리고 코를 발리고 몸통이 전체를 다 빌려서 그 생명들의 집 노릇을 하고 집합소 노릇을 하고 심부름꾼이 되고 관리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릅니다. 그러니까 기른다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즉 자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발점의 미생물이 지금 종점에 가서도 또 미생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은 위대하다고 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아서 내 자생 중생들이 모두 진화되고 창조가 되고 바로 화신이 되고 응신이 돼야, 천백억화신으로 바뀌어서 천도가 돼야만이,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이 바로 미생물을 벗어나고 부처도 되고 법신도 되고 일체가 다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전체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팠다 하면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데, 한마음 안에서 모두가 출현을 해서 응신으로 응해서 나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발전을 못해서 미생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미생물에서 왔다는 것을 각자 자기의 몸속을 보면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억겁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몸속을 보면 자기가 바로 미생물에서 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물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그 증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물주머니에서, 어항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산하대지의 턱 턱이던 허공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항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이나, 또 몸통이 어항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뭐가 다를까? 여러분은 내 자유껏 누려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마음도 자

가 과학적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無)의 세계, 바로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시지마는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없어야, 개개인들이 다 '내가 없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먹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힌트를 드리다면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 하

되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참 자랑스럽게 잘한 거 다하는 것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찰나찰나 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 노릇 할 때도 내가 한 거고 남편 노릇 할 때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무심이에요. 나는 무심이에요. 행동 이걸로 됐다 저걸로 됐다 이렇게 행을 하니까 '내가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캐치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 할 때,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요? 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방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되는 데요! 금방 '아무개야!' 부르면 아들이 되는 데요! 이렇게 광대한 천차만별의 방법은 아마도 마음 떠나서는 없을 겁니다. 이

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산천초목들도 서로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서로 주고받는 마음끼리 모여서 임을 기다리듯이 내면 불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속삭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말로다가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신경이 날카로워서 말이 조금 잘못되면 엇각이 나서 오묘조묘하던 사랑이 그만 변해서 돌아가죠, 증으로 돌아가고, 이러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이웃에 어떠한 문제나 괴로움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보고 들을 때에 벌써 가설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이웃집하고도 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전 마음의 가설이요, 보이는 데 물질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가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떡하든지 일어서야 되겠지.' 한다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그 마음이 돌아서서도 저히 고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돌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바로 스위치를 올려놓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불 들어오는 전력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들으시고 그냥 실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탁 올려놓고서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는 동안이 실험이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 아, 저런 것이로구나!' 할 때에 체험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해서 가르쳐 주신 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풀수의 내 마음까지도 알 수 있노라,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노라.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노라."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3년 8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도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넘어서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생 중생들 물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뿔이 또 다릅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몸통이, 수레바퀴에서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어항 속이라 함은 공기주머니를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는 한 치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복으로 돌아친다면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살려 달라고 비는 거와 같아서 더더욱 자기 마음은 자기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거를 쫓는데 내가 혼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쫓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쫓다 하지도 말고, 내가 먹었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먹었다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가운데,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보고선 나쁜 거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되고

나를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아시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내 한몸 속에 있으니까 한마음이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이 같이 먹는 것이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공생·공유·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쫓다고 하더라도 아예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쫓다.' 이러는데 내가 쫓다가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의 내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거를 쫓는데 내가 혼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쫓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쫓다 하지도 말고, 내가 먹었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먹었다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가운데,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보고선 나쁜 거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되고

마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법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를 읊는 사람은 '묘법인가 하노라.' 이라고 했는데, 하하하...

하여튼 여러분, 비 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을 뛰어넘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이 어디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서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 하는데, 이전 모습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신중함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다 가 보세요, 여러분 안방에는 뭐가 있고, 마루 올라가는 데는 뭐가 있고, 신발장은 어디 있고, 냉장고에 뭐를 해 놓고 왔고 이런 걸 다 아시죠? 마음이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는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KRWUO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무료배송 66%** **엔손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 전시상품 절대 아담  
-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 문의  
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철성상회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OPEN**

현대불교형불상  
www.hyunbulshop.com

렛츠고~!!

구매 문의  
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철성상회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